

어쿠스틱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가슴 저미는 연주 소름 돋는 목소리 故 김광석 향기가...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김광석 같은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인 이봉세(박창근 분)가 '이등병의 편지'를 부르고 있다. 사진제공 | LP스토리

故 김광석 음악 모티브 콘서트형 뮤지컬 하모니카·통기타 등 배우들이 직접 연주 스토리 최대한 억제하며 23개 명곡 선사 박창근·최승열 꼭 닮은 음색...감동 물결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김광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포말처럼 사라져갔다. 애잔한 추억이 ‘싸아아’ 비명을 지르며 모래 속으로 스며든다. ‘아얌개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서른 둘, 청춘의 꽃은 겨우 망울만 맺혔을 뿐인데 그는 연강 세찬 눈보라가 되어 우리 곁을 떠났다. 김·광·석. 그의 음악을 구슬처럼 스토리에 꿰어 만든 뮤지컬이 올해 세 편이나 관객과 만난다.

‘어쿠스틱 뮤지컬’이란 부제를 단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세 편 중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작품이다. 지난해 대구에서 막을 올려 호평을 받았고, 여기서 탄력을 받아 5월 19일까지 서울 동숭동 아트센터K 네모극장에서 공연 중이다. 역시 김광석의 음악을 모티브로 한 뮤지컬 ‘그날들’도 4일 대학로뮤지컬센터에서 개막했다. 세 번째 김광석 뮤지컬은 장진 감독이 연출을 맡아 연말께 모습을 드러낼 예정.

김광석의 노래 제목을 그대로 따 온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중대형 극장에서 공연하는 다른 두 작품과 달리 아담하고 소박한 소극장을 작품이다. 배우들이 노래뿐만 아니라 악기까지 연주하는 콘서트 형식으로 구성됐다.

●드라마를 죽이니 음악이 살아났다

얼라이트 피아노 한 대(그나마 공연이 시작되면 무대 뒤로 사라진다), 구석에 세워놓은 통기타, 등받이도 없는 작은 의자 몇 개, 소박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게까지 한 무대다. 심드렁한 얼굴로 무대를 내려다보던 관객들은 그러나 주인공 이봉세의 입에서 나지 막하게 ‘거리애~’가 흘러나오자마자 순식간에 무장 해제되어 버리고 만다. 어느새 촉촉해진 두 눈은 무대 위의 배우에게 고정되어

있지만, 머릿속에는 또 다른 영상이 한 겹씩 쌓여간다. 하긴, 이 공연 보러 온 관객 중에 김광석 노래에 얽힌 사연 하나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뮤지컬은 음악이 전면에 서는 장르지만 스토리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는 곳’의 매력은 아이러니하게도 스토리를 최대한 억제해 놓았다는 데에 있다. 스토리는 노래(넘버)와 노래 사이를 느슨하게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에 만족한다.

김광석같은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 95학번 대학생 이봉세와 몇 명의 선배배들이 ‘블루 드래곤즈’라는 통기타 그룹을 결성해 대학 축제에 나가 1등을 한다. 이봉세는 군대를 가고, 제대해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하다가 연예기획사 ‘이등판’ 사장의 눈에 띄어 보이 그룹의 멤버가 된다. 그 후 졸참 망해서 막노동을 하고, 훗날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블루 드래곤즈’ 멤버들이 다시 모여 콘서트를 연다는 것이 이 작품의 스토리다.

■양기자의 내 맘대로 평점

감동★★★★☆ 애잔한 추억이 물고 오는 감동의 힘!

웃음★★★★☆ 폭소까지 아니지만 웃기는 장면이 꽤 있다

음악★★★★☆ 스물세곡에 모두 별 네개를 박아주고 싶다

무대★★★★☆ 소박한 합성

●김광석보다 더 김광석 같은...주연들 음색, 창법 똑같아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는 김광석이 남긴 스물 세곡의 노래가 등장한다. ‘거리애’, ‘나의 노래’, ‘어느 목석의 사랑’,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이등병의 편지’,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사랑했지만’, ‘서른 즈음에’,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변해가네’ 등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저merz는다. 김광석의 애절한 하모니카, 오케스트라처럼 울려나오는 기타, 폐부를 찢는 전 뒤 목구멍을 통해 일거에 쏟아내는 듯한 목소리가 환상처럼 울린다.

이 뮤지컬을 좀 더 재미있게 관람하기 위한 팁 하나. 이봉세 역을 맡은 가수 박창근과 배우 최승열의 음색과 창법은 김광석을 복제한 듯 빼닮았다. 노래를 듣다보면 종종 소름이 돋는다. 여러 역을 숨 거쁘게 번갈아 맡는 멀티맨 역의 박정권, 맹상열의 감초연기는 각자의 추억 속에 빠져든 관객들을 다시 무대로 돌아오게 해준다.

김광석의 그림자가 길고 짙게 드리워진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면 김광석을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KB바둑리그 재미·전략 UP

9일 개막...장고바둑·주장전 등 도입



‘세계 최대의 바둑리그’인 2013 KB국민은행 바둑리그(이하 KB리그)가 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9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첫

마블, 신한철일업, SK에너지, 정관장, Kixx, 티브로드, 포스코엔텍, 한게임 8개 팀이 참가해 총 56경기, 280국의 정규리그 대결을 벌인다. 상위 4개팀이 포스트시즌에 진출해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우승상금은 3억원.

11일 포스코엔텍과 한게임이 개막전을 치르며 케이블방송 바둑TV에서 매주 목~일요일 오후 7시와 9시에 생중계한다.

세 가지 관전포인트를 알아두면 올해 KB리그를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즐길 수 있다.

①장고바둑 도입으로 더욱 치열해지는 오더싸움 전 대국 속기(제한시간 3분)로 치르던 종전과 달리 올해 KB리그는 네 판의 경기 중 제4국을 장고대국(제한시간 1시간)으로 진행한다. 이로 인해 감독들은 속기와 장고에 강점이 있는 선수를 가려 기용해야 하는 숙제가 하나 더 생기게 됐다.

②락스타리그 무제한 기용 가능

KB리그의 2군리그인 락스타리그의 선수들

을 무제한 기용할 수 있게 됐다. 신민준(넷마블), 김진희(한게임), 한승주(Kixx) 등 1990년대 태생 기사들이 락스타리그에 진입하면서 돌풍이 기대되고 있다.

③주장전 도입으로 더욱 흥미진진

무승부를 방지하기 위해 주장전을 도입했다. 네 경기 중 제1국을 주장전으로 치르는 것. 2-2 무승부가 날 경우 주장전 승리팀은 승점 2점, 패배팀은 승점 1점을 얻게 된다. 양형모 기자

왜소하다! 빠르다! 힘이 약하다! 중간에 시든다?

단 한번 ‘뉴 맨’!! 평생 단단한 놈!!



대표이사 서영숙

www.newm.kr

NAVER 뉴맨

네이버에 뉴맨을 검색하세요

· 일본지사 T. 03-6278-9461
· 중국지사 T. 0433-286-5031

▶ 남자는 원한다!

킨제이 보고사에서 20대는 하루1회 30대 주4회 40대 주2회 50대 주1회 60대는 월3회 정도의 성생활을 한다는 보고를 낸바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남성은 이보다 많은 횟수를 원한다. 특히 더 크고 강해져서 여성이 만족할 만큼의 시간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가지고 있다.

▶ 남자가 변한다!

‘뉴 맨’은 젊고 발기력에 문제는 없지만 더 크고 두꺼워져서 시간과 횟수의 연장을 원하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기 강직도가 약해지고 중간에 시들어 약물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관계가 어려운 중년이상의 남성에게 믿기 어려운 만큼 커지고 단단하고 강해져 횟수와 시간에서 최고의 남자를 만들어준다.

▶ 최장! 최다의 기록! ‘뉴 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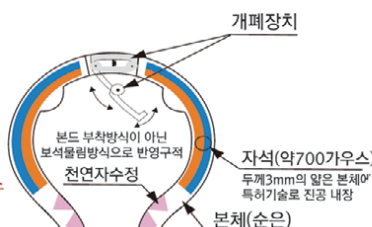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확대, 조루, 발기력 강화의 효능을 인정 ‘남성 성기능 강화용 링’이라는 발명의 명칭으로 유일하게 발명특허를 받은 ‘뉴 맨’은 2005년 각종신문매체에 광고 판매를 시작, 현재 8년간 8천여회의 신문 광고로 단일제품 사상 전무후무한 최장기간, 최대매체의 광고기록을 세웠다. 또한 일본과 중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20여개국 수출, 50만 고객 돌파의 쾌거도 이루었다. 50만 고객의 의미는 100만 고객일 것이다.

▶ 왜 점점 커지는가?

음경 등·정맥위치와 역할을 고려한 일체적 디자인, 천연자수정의 원적외선, 700가우스의 자기장효과로 음경해면체의 혈액유입량이 평소시보다 30%정도 증가, 더 커지고 굵어지고 단단해진다. 이는 헬스로 근육과 몸을

뉴 맨 단면도

* 사이즈를 약 5~7mm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중설계 되었음.



키우고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서 새벽의 강한 발기와 관계시의 혈관 마찰은 점점 더 크고 강한 남성을 만들어 준다.

지금까지 ‘뉴 맨’을 구입한 50만 가까운 남성대부분이 큰 사이즈로 교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 왜 시간이 연장되는가?

음경몸통 성 신경을 감싸는 음경외피는 피스톤 운동시 팽팽해져서 귀두와 함께 여성기를 마찰하는 게 본인의 임무인데, 보편적인 외피는 팽팽하지 않아 밀리면서 몸통 성 신경을 자극하여 빠른 사정을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뉴 맨’을 착용하면 커지고 굵어지는 효과로 팽팽해진 외피가 성신경의 자극을 줄여주어 시간을 연장시킨다.

▶ 8년간 지켜온 뉴맨의 약속!

‘15일 사용 후 불만족시 이유없는 반품, 전액환불!’

이 약속은 제품의 자신감과 회사의 책임감에 의한 변함없는 약속이다.



국내 유일 ‘성기능강화용 링’ 특허 획득



평상시 사이즈 단위 cm	뉴 맨 호수
6.5이하	주문제작 1호
6.5	2호
6.75	3호
7	4호
7.5	5호
7.75	6호
8	7호
8.25	8호
8.5	9호
8.75	10호
9	11호
9.25	12호
9.5	13호
9.75	14호
10	15호
10.25	16호
10.5	17호
10.75	18호
11	19호
11.25	20호
11.5	21호
11.75	22호
12	23호
12.25	24호
12.5	25호
12.75	26호
13	27호
13.25	28호
13.5	29호
13.75	30호
14	31호
14.25	32호
14.5	33호
14.75	34호
15	35호
15.25	36호
15.5	37호
15.75	38호
16	39호
16이상	주문제작

T. 1577-5579, 010-7636-3346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주)케이앤제이스포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06-1 한도빌딩 6층

컬처박스

우장춘 박사의 삶을 재조명하다

●우장춘의 마코토(이영래 지음 | HNCOM)



우장춘 박사. 그를 써 없는 수박, 한국 원예농업의 선구자로만 안다면 절반도 모르는 것이다. ‘우장춘의 마코토’는 우장춘의 삶을 재조명한 책이다. 기존에 알려진 사료와 비화 그리고 미스터리를 역사소설 쓰듯 풀었다. 책 제목 앞에 ‘한·일사에 숨겨진 금단의 미스터리’라고 붙인 부제가 말해주듯 그의 인생엔 한·일 집국의 세월이 새겨져 있다. 명성 황후 시해 사건에 연루된 아버지, 해방 후 일본에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택한 사연, 고위직을 마다하고 묵묵히 직분에만 충실했던 그의 삶은 한·일 양국에게 보내는 평화와 화해의 드라마다. 팁 하나. 마코토는 우장춘의 일생을 관통하는 코드로 봐계 일화의 근본 개념 중의 하나인 성(誠)을 의미하는 일본어.

■눈길가는 새책

인문·에세이

●14호 수용소 탈출(블레인 하든 지음 | 아산정책연구원) 자유를 찾아 북한에서 서방까지 탈출한 한 남자의 여정. 우리들이 모르는 북한수용소의 생생한 이야기가 소개 된다. ●뫼신 사냥꾼(전6권)(윤현승 지음 | 새파란상상) 신령스러운 생명체인 뫼신을 사냥하는 한 청년의 일대기. 작가가 5년 여에 걸쳐 새로운 세계관을 다듬은 새 판타지 소설이다. ●해커 묵시록(최희원 지음 | 청조사) 천재 해커, 전 국정원장, 차기 대권주자 등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과 음모를 그렸다. 우리 미래를 예측한 예지력이 돋보이는 스릴러. ●이미 뜨거울 것들(최영미 지음 | 실천문학) 정치, 사랑, 가족사 그리고 홀로 서있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그려낸 최영미 시인의 시집. ●상상놀이(마광수 지음 | 책읽는 귀족) 성문학의 대명사 마광수 교수가 쓴 단편소설집. 음탕할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 그의 미학을 발견할 기회다.

건강·실용

●공복워킹(이시하라 유리 지음 | 성인당) 공복에 걸으면 병이 걸리지 않는다. 장수를 위한 공복워킹의 실천법을 소개했다.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김세현 지음 | 토담미디어) 우리 몸의 독소와 지방, 각종 노폐물을 빼내고 스스로 새롭게 태어나는 ‘인체정화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건강법 모색했다. ●멈추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김경호 지음 | RHK) 가수 김경호의 에세이. 무대는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한다며 꿈을 향한 그의 열정의 삶을 그렸다. ●너브(테일러 클락 | 한국경제신문)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의 실체는 무엇인가. 피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두려움을 삶의 에너지로 바꾸는 법이 담겨있다. ●인상을 보면 인생이 보인다(엘리 링컨 베네딕트 지음 | 세종서적) 인간의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해 인상으로 성격과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는 세기의 고전을 국내 최초로 완역한 자기계발서.

양형모 기자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